## 18쪽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한 1873년, 대외 정책의 변화는, 문호 개방을 통한 열강의 침략을 회피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당시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곧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졌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었다.

### 강화도 조약 - 조선 침략의 발판

제 1조 : 조선은 자주국, 일본과 평등한 권리 - 청의 간섭을 피함

제 4조 : 부산, 원산, 인천 항구 개항 - 침략

제 7조 : 암초가 위험하니 해양 측량권

제 10조 : 치외 법권

### 강화도 조약에 이은 **조일 무역 규칙**

제 6칙 : 개항장에서 곡식(쌀, 잡곡)의 무제한 유출

제 7칙 : 항구세 납부하지 않으며, 관세 부과 아니함

**조일 무역 규칙**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 곡물 수출 금지 권리를 가지는 조일 통상 장정이 1883년 맺어졌다.

### 조일 통상 장정

제 9관 : 화물에 대한 관세 납부 의무, 판매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한다

제 37관 : 미곡 수출 금지 권리를 가지나, 조선 지방관이 1개월 전 통지를 해야한다.

## 동학 농민 운동

기본적으로 반외세, 반봉건적 성격의 운동으로서, 동학의 확산이 동학 농민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1. 방곡령(조일통상장정) 했으나 일본의 배상금 요구
2. 면세품으로 인한 가내 수공업 피해
3. 쌀값의 폭등

이러한 이유들로 **반외세적** 기운이 높아졌고, 동학 또한 널리 퍼졌다.

2대 교주 최시형 중심으로 **충청도 공주**와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 신원 운동**을 하고, **충청도 보은**에서 **탐관오리 처벌**을 요구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 고부 농민 봉기

전라도 고부에서의 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맞선 농민들이 관아를 습격하였다.

### 제 1차 농민 봉기

**고부 농민 봉기가 탄압**되자, 전봉준과 동학 지도부는 보국안민 + 제폭구민 구호 아래 무장에서 봉기를 하였다.

1. 무장에서 봉기
2. 황토현에서 승리
3. 전주성 점령

전주성 점령은 정부가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써 청의 조선에 대한 개입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동학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났다. 그것은 **보국안민에 위배**되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 전주 화약의 영향

1. 농민군의 집강소
2. 정부의 교정청